

지역 소식통

NH농협 부안군지부

가축질병 확산 차단 총력

NH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는 지난 20일 부안을 순환방목에 위치한 방역물품 비축기지과 관내 양돈·가금 농장 거점 주변에서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에는 NH농협 부안군지부장을 비롯한 군지부 직원들과 고창부안축협 직원 등이 참여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특히, 이날 방역에 고창부안축협 방제 차량을 활용해 양돈 및 가금농장 진입로와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축산농가 출입차량 소독과 주요 거점 소독을 병행하며, 농가 스스로의 차단 방역 실천을 당부했다.

조상완 지부장은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농협 차원의 방제 활동을 통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축산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주산면 지사협

생일 특화사업 추진

부안군 주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나용성·민간위원장 박성철)는 최근 'Happyday, Birthday'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사업은 생일을 맞은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생일 축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해 매월 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독거노인생활지원사들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2월에는 2명의 어르신을 선정해 협의체 위원과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생일축하 노래와 떡 케이크를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부안형 태아보험·대학 전 학년 반값등록금 등 전 생애주기 기반 정착 환경 구축

부안군은 기존의 단편적인 인구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신·출산·보육·청년 정착·귀농·귀촌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기반 인구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 인구는 지난 2020년 5만 2140명에서 지난해 말 4만 7220명으로 5년간 492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감소한 인구는 846명으로 이 가운데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발생한 자연 감소 인원이 702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인구 감소의 약 83%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안군 인구감소의 핵심 원인이 자연 감소임을 보여준다.

부안군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172명에서 지난해 13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05명에서 837명으로 증가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부안군은 이러한 인구 감소 구조 진단을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단기 유입이 아닌 정착과 생애 유지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핵심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동시에 만드는 것으로 결혼·출산·양육·교육·청년·정착 등 전 과정을 연결하는 생애주기 기반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결혼·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초기 양육까지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신 초기부터 의료·건강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 임신·출산 가정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임신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양육 안정화를 돕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의 출산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는 공보육과 생활권 중심 돌봄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변산면 '별빛바다어린이집' 개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공보육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아카데미·작은도서관을 집약한 학교통합시설인 변산돌봄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가정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사업, 지역 전반의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 사업을 병행 추진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장기 정주를 유도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학교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추

가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대학 비전학 청년의 진로 설계를 돕는 학원비 지원사업,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기장학금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을 연계한 종합 정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 중인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전북청년취업지원센터, 재직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연계 추진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출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구조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분야별 대표 사업과 신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생애주기 기반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단기간의 인구 반등보다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정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태아 단계부터 보육·교육, 청년과 가족, 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의 미래 이끌 100년 먹거리 찾는다'

2027·28 국가예산 3차 발굴보고회 개최... 신규사업 대거 발굴

고창군이 지난 20일 고창군수 주재로 2027·28 국가예산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3차까지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총 123건 6,300억원 규모로 이 중 2027년 사업은 83건 3,752억원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한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레저스포츠 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평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고창군은 3월 초까지 부처출장을 통해 사업 필요성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산 편성권



을 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효율성이 높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옥석 사업을 가려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더 보강할 방침이다. 고창군수는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비전실현을 위해 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읍시,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나서

참좋은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설치

정읍시가 경제적 고통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그냥드림' 코너는 참좋은푸드마켓(명동로 55) 내에 설치됐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한 뒤,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계 유지가 힘든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코너를 방문하면 된다. 이들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필수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



미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물품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2회차 방문객부터는 복지 상담을 진행하며 3회차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식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사업' 시행

다양한 근로 기회·개인별 맞춤 취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올해 총 42억원 투입

정읍시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5억원 늘어난 42억원 규모의 '2026년 자활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근로 기회와 개인별 맞춤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과 연계해 참여자들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다질 계획이다.

시는 우선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읍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10개 사업단에서 총 1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분야는 △공정형 세탁 △초음파 세차 △카페 및 생화차 사업 등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단을 통한 근로 기회 제공은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 일수와 사업단별 단계에 따라 월 77만 8440원에서 최대 161만 4080원 수준이다.

시는 적극적인 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반영할 때 자활급여액의 30%를 공제해 참여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준다.

이와 함께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 I·II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관련 사업에 약 5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화수 시장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근로 기회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활근로 사업단인 '블러광광'이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지자체의 사업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44억원 투입해 친환경차 243대 보급

정읍시가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 44억원의 예산을 투입, 상반기 중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243대를 보급하는 '2026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 승용차 140대, 전기 화물차 88대, 수소전기자동차 20대로 총 243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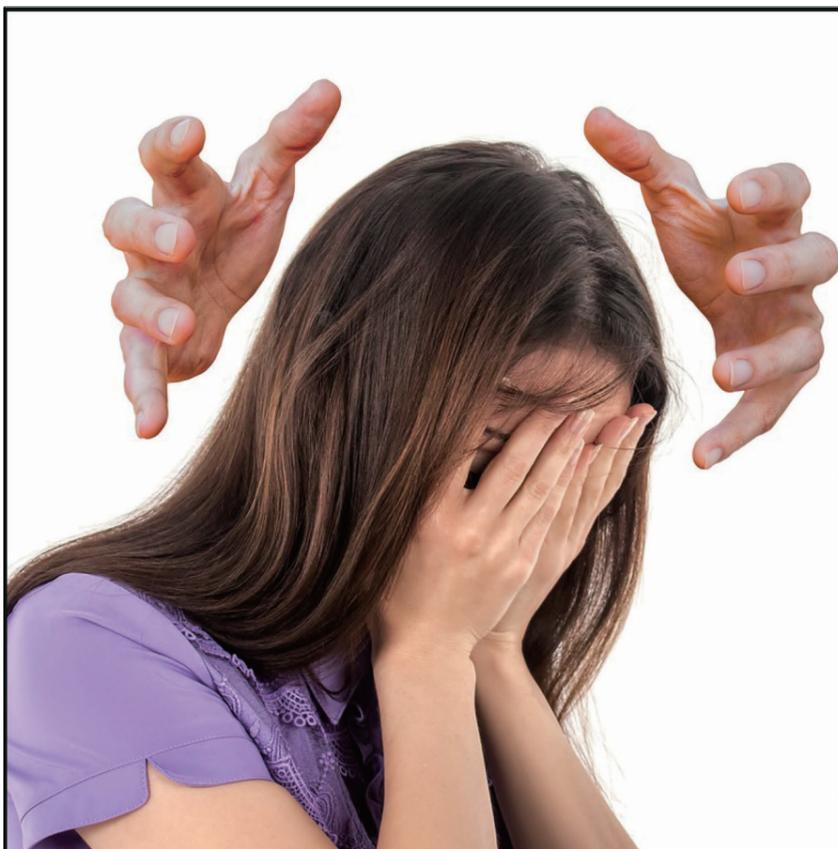
차종별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을 지원하며, 수소자동차는 단일 차종으로 34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경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할 개인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교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